

‘진짜 질문이 뭐였지’ 되물어야 본질이 보인다

호모 콰렌스 질문하는 인간

마셜 골드스미스 외 지음, 서영조 옮김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마주친다. 가정, 건강, 진로, 결혼 등 적잖은 문제들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답을 찾으려 애를 쓰지만 헛소리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답에 매달린 나머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일수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약 문제 해결에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을 제대로 된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고. 이 말은 제대로 된 질문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호모 콰렌스’(Homo quaerens)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질문하는 인간이다. 향후 미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시대다. 기계가 많은 노동을 대체한다고 인간의 의지, 감성, 창의성 같은 부분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존재다. 질문을 한다는 것,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세계적 석학 마셜 골드스미스,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CEO 덴 프라이스 등 31명의 리더가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책을 냈다. ‘호모콰렌스 질문하는 인간’은 인생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전개된다. 지식공학자 허병민이 기획하고 엮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오늘 내 머릿속을 괴롭히는 단 하나의 걱정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정말로 행복해질까? 어떠한 순간에도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가?

책에 참여한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거창한 문제보다 일, 관계, 지식, 행복 등 삶에서 부딪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의사인 알프레드 소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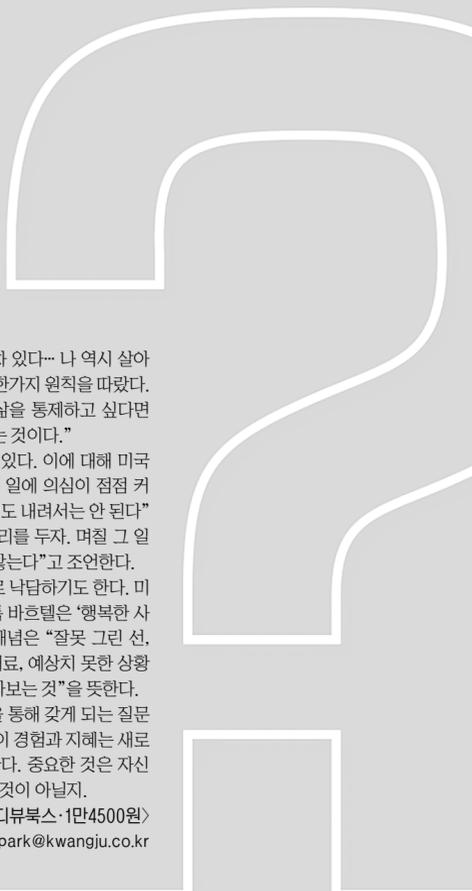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로 가득 차 있다... 나 역시 살아오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났고, 늘 한가지 원칙을 따랐다.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하므로, 자기 삶을 통제하고 싶다면 가장 흥미가 느껴지는 길을 택하라’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버거울 때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기업가 덴 프라이스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의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그럴 때는 우선 그 일과 조금 거리를 두자. 며칠 그 일을 멈춘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지는 않는다”고 조언한다.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실수나 실패로 낙담하기도 한다. 미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인 톰 바흐텔은 ‘행복한 사고’를 하라고 한다. 행복한 사고의 개념은 “잘못 그린 선, 잘못된 말, 앞질러진 잉크, 빠뜨린 재료,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도전 등에서 영감과 기회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책은 일상에서 또는 일생을 통해 갖게 되는 질문과 의문을 토대로 엮여 있다. 저자들이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닐지.

〈디뷰북스·1만4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기탄잘리=무명의 인도 시인이었던 타고르에게 동양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시집 ‘기탄잘리’는 103편으로 된 산문 시로 신, 고독, 사랑, 삶, 여행을 노래한다. 기탄잘리의 ‘기트(git)’는 노래이고, ‘안잘리(anjali)’는 두 손 모아 바친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탄잘리는 ‘노래의 바침’을 뜻한다. 들뜬 같은 소박함과 섬세한 빛깔을 지닌 ‘기탄잘리’의 시편들은 장식적인 언어를 버린 평이한 시어와 경건한 어조로 자연과 영혼, 삶과 신에 대해 노래한다.

〈무소의뿔·1만2000원〉

▲공자던, 논어는 이것이다=이 시대 제대로 된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책은 공자의 시대와 사상을 서사적 기법으로 풀어낸 명쾌한 논어 이야기다. ‘공자던, 논어는 이것이다’는 공자(孔子)의 사상을 서사적 기법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인문학 책이다. 저자는 정확한 고증에 의거해 공자의 사상을 근원부터 훑어내며 ‘논어’의 사상과 시대적 상황을 씨줄 날줄로 엮어간다. 이 책은 고전 읽기의 재미를 선사하며 독자들을 깊고 넓은 진짜 공부의 세계로 안내해줄 것이다. 〈실림터·1만8000원〉

▲융합의 신비=분석심리학의 개척자 칼 구스타프 융이 마지막 남긴 걸작 ‘융합의 신비’, 1961년 86세로 세상을 떠난 칼 융이 81세에 마무리한 책으로, 분석 심리학의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그의 관심사였던 연금술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연금술이라든 흔한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방법에 전착한 사비비 과학 정도로 받아들여지거나 화학



의 선구 역할을 한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칼 융의 평가는 달랐다. 연금술은 연금술사 본인의 심리학적 변형을 추구한 영적 기술이라는 것이 융의 해석이다.

〈부록북스·2만8000원〉

▲카테고리 킹=아마존, 구글, 우버, 이케아의 공통점은? 왜 어떤 스타트업은 시장을 독식하는 절대강자로 남고, 어떤 스타트업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가? 저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015년 현재 우버의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같은 차량 공유업체의 2인자인 리프트(LYFT)의 기업가치가 2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테고리 킹’은 실리콘 밸리 전설의 경영컨설턴트 그룹 ‘플래이비거’가 말하는 이기는 기업들의 비밀을 담았다. 〈지식너머·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만 잘하는 게 없어=언제나 느린 동규는 수학을 잘해 텔레비전에 나왔다. 뭐든 똑 부러지는 심지영은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코흘리개 성운 조차 속담 외우기를 잘한다.

그럼 승민이는? 승민이가 잘하는 건 무엇일까? 과연 승민은 이 모든 속속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동화책 ‘내 다리가 부러진 날’ 주인공 승민의 두 번째 코믹 일기 ‘나만 잘하는 게 없어’는 요즘 어린이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그렸다. 〈풀빛·1만8000원〉

▲바다로 간 곰=세계적으로 과학적인 문자이며 아름다운 글자로 알려진 한글은 참 재미있는 문자이기도 하다. 거꾸로 돌리거나 옆으로 돌리면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혹은 세로로 접거나 가로로 접었을 때 생기는 글자의 모양도 재미난다. ‘바다로 간 곰’은 한글을 거꾸로 돌렸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글자들을 추려서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자유를 좇는 ‘곰’ 친구와 함께 한글의 묘미와 바다와 같이 변화무쌍한



상상력의 세계로 떠난다. 〈피란지전자·1만2000원〉
▲눈이 사뿐사뿐 오네 = ‘시집살이’를

통해 ‘배어난 시집’이라는 극찬을 받은 곡성 할머니들이 시 그림책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사뿐사뿐 오네’에는 ‘눈 오는 날’에 얽힌 할머니들의 추억과 애환을 그렸다. 어린 시절, 부모, 형제, 떠나간 남편을 그리며 지은 열여덟 편의 시와 그림이 담겼다. 느릿느릿 온 마음을 다해 지은 시와 소박한 그림이 독자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다. 〈북극곰·1만3000원〉

빛을 원하는 만큼 내 그림자도 사랑하라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정여울 지음



그녀는 책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을 적어 보라. 사람과 사물과 감정과 상태를 가리지 말고 마음껏 나열해 보라. 그런 다음 왜 싫은지, 왜 미운지, 왜 혐오스러운지를 낱말로 적어보라. 그것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낭독해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도사린 그림자의 실체를.”

그녀는 ‘실제로’ 이런 글을 적어봤다고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만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을 때는 ‘외부의 살생부’였는데 끝내고 보니 ‘내면의 트라우마’ 목록이었다는 사실을. 자신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어떤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심리 치유 에세이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를 쓴 문학평론가 정여울에게 이런 시도를 하게 한 건 구스타프 융의 책 ‘인간과 상징’이었고 그녀는 융이 말

하는 ‘그림자’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리고 매사에 감정을 억제하고 살았던 만발 엘리너의 이야기를 담은 제인 오스틴의 명작 ‘이성과 감성’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다.

“내가 사랑한 유람”, “그때 앞알더라면 좋았을 것들”, “공부할 권리” 등을 써온 정여울이 펴낸 이번 책은 ‘문학과 심리학의 하모니’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 에세이다. 저자는 “심리학의 눈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상처와 천천히 작별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늘 괜찮다 말하며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에뿸한 공감의 편지’라는 말처럼 저자는 딸부잣집에서 자라며 느꼈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내 보이며 이야기를 건넨다.

저자는 융 심리학의 핵심인 자신만의 ‘그림자’ 찾아낼 것을 주문한다. ‘융에게 그림자란 자기 안의 ‘열등한 인격 부분’이었다. 우리 자신의 결핍, 콤플렉스, 트라우마, 집착, 질투, 분노, 이기심을 포함한다.

여기에 카프카의 ‘변신’, 이창준의 ‘선학동 나그네’,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베르나르트 쇼울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윤홍길의 ‘아홉살레 구두로 남은 사내’,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민음사·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